

Contents

등급정보 365* _ 2008 May Vol.141

- 02 칼럼
우리 국민 먹거리 산업, 양돈산업
- 04 기획특집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국내축산업
대책 및 동기간 한우도축과 가격변화
- 07 전문가 심층정보
종돈개량을 활용한 좋은 육질등급 받기
- 09 등급판정 우수농가 탐방 - 소
자영농장 - 이근범 농가
- 10 등급판정 우수농가 탐방 - 돼지
선진농장 - 장재철 농가
- 11 등급정보 - 소
- 16 등급정보 - 돼지
- 19 등급정보 - 닭고기
- 20 등급정보 - 계란
- 21 지역뉴스/쇠고기이력추적제시스템
- 22 등급판정소식 - 지역본부
- 23 등급판정소식 - 본부

칼럼



대한양돈협회 _ 김 동환 회장

우리 국민 먹거리 산업, 양돈산업

● 한·미 쇠고기 협상이 지난 4월 18일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는 내용으로 전격 타결되어 우리 양돈농가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는 광우병 안전성 논란으로 국민 관심의 초점이 되어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번 사건의 본질 중 하나는 이번 협상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산업이 바로 양돈산업이며, 그에 대한 피해 대책이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국내 양돈농가들이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되서리를 맞았다. 한우는 품질 고급화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비싼 한우의 대체육으로 인기를 끌었던 국산 돼지고기가 이제는 값싼 미국산 쇠고기와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번 정부가 발표한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의 주요내용은 이미 한·미 FTA 타결시 정부 대책에 이미 포함되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 많은 축산농가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 양돈농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양돈산업 생존방안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돼지가격 생산안정제' 제도 도입으로 양돈산업의 생산



표지사진 '사과꽃'
제주지역본부 과장 이수홍 작

기반을 안정시켜야 한다. 일부 축종의 경우 몇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돼지고기의 경우 부재하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비슷한 제도로 위험을 분산하고 정부의 돈육자급률 유지를 위해 정부가 산정한 생산비 이하 가격 형성시 돼지 생산안정제도 기금으로 차액을 보전하여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돈육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제공돼야 할 것이다.

둘째, 돼지열병 청정화의 3년 이내 달성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이다. 국내 돈가 안정 및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서는 대일수출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돼지고기 냉동육의 완전 개방되는 2014년 이전에 돼지열병청정화를 시키겠다는 강력한 정부 의지표명으로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3년 내 강력한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최소 2천억 정도의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축산업의 SOC(사회간접자본투자) 차원에서 가축분뇨처리 정책이 집중되어야 한다. 정부 부처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통합적으로 지자체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넷째, 사료가격 폭등으로 인한 생산비 급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내 양돈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1A 등급 돼지고기에 품질향상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축산정책자금 금리 1%대 조정 및 폐업 보상을 조기 시행해야 하며,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보조비율 상향조정 또한 조기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농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모성질환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우리 서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우리 양돈산업은 농축산물 생산액 중 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육류 소비량면에서도 전체 축산물 소비량의 54%(87만톤)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식량자원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국내 양돈농가들은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한·미 및 한·EU 등 주요 선진 축산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국제적인 사료곡물가격의 상승, 그리고 국내 소모성질환에 의한 생산성 저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양돈농가가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에서 우리 축산산업이 갖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가에 있다. 우리 국민 먹거리 산업으로서 우리 양돈산업을 지키려는 정부 의지가 없으면 백가지 대책도 결국은 축산농가들의 분노를 잠시 달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국내 돼지고기 시장은 오는 2014년을 기점으로 무관세로 인한 완전 자유경쟁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국내 양돈산업이 양돈 선진국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는 앞서 열거한 대책 등 국내 양돈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